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 추석

##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 "함께 즐거워하라"

예 배 순 서

인 도 : 가족중 어른

목 도	.....	다 함께
성 시	.....시편 105편 1-3절.....	인도자
찬 송	..... 589장.....	다 함께
기 도 (또는 사도신경)	.....	다 함께
성경봉독	.....신명기 16장 13-17절.....	인도자
메시지	....."함께 즐거워하라".....	인도자
찬 송	..... 559장.....	다 함께
주 기도	.....	다 함께

### (신명기 16장 13-17절)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17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추석은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다. 최근 사회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사람들의 심성이 삭막해져 가면서 가족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 1. 하나님께 감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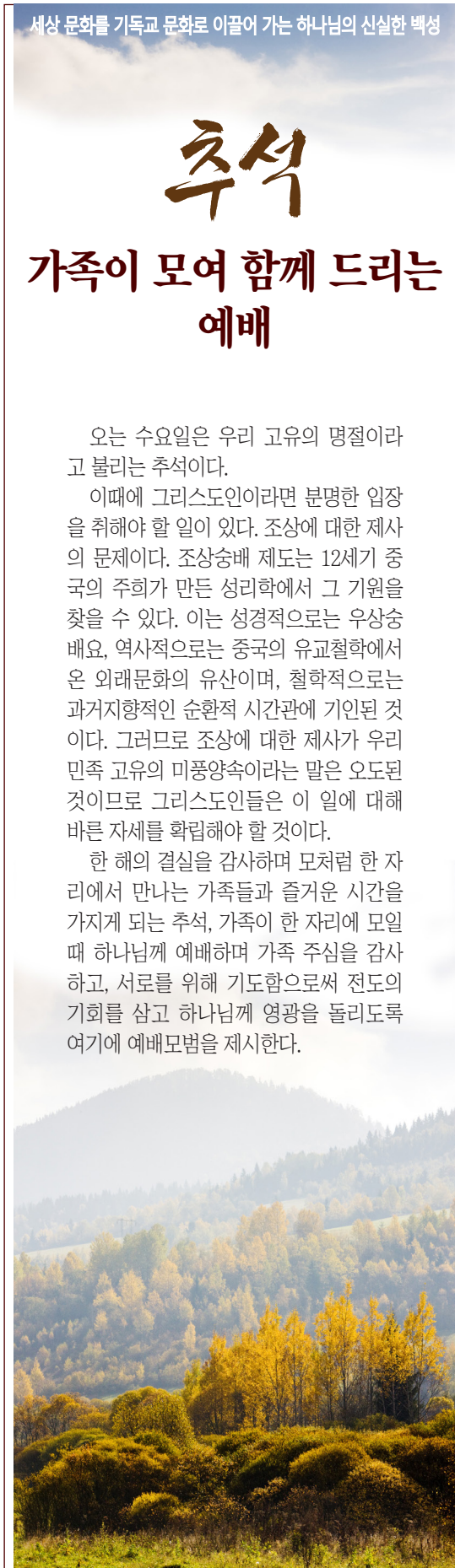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을 지킬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다(15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추석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한 해의 소출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온전히 즐거워'하는 추석이 될 것이다.

#### 2. 함께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 하라고 하였다(14절).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가족들 중에 외롭게 있는 이들과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 3. 복음을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이레 동안 지켰다(13절). 그 이레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도의 기회로 삼는 추석이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목회> 에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엡 4: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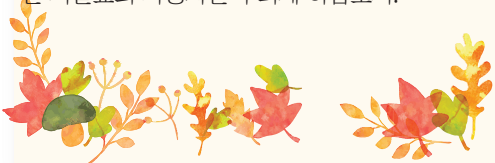
# 2017 사명자 대회

10.8(주)~11.26(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 20(월) ~ 25(토) 새벽 5시-6시, 강사 : 김성봉 목사

## 공동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은 절제하면서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사명자되게 하옵소서.
- ②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 교회로 재건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푸소서.
- ③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경외심과 진지한 부지런함 그리고 바른 인품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침과 권면, 경고, 치리, 용서를 하며, 우리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고, 신령일치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목자를 보내 주옵소서.
- ④ 서울교회가 노회와 총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형제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 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 을 이루어, 세계복음화에 머릿돌이 되게 하옵소서.
- ⑥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교회에 건강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 ⑦ 서울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서울교회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말씀과 기도운동인 사명자대회는

### 가. 말씀

- 1) 매일 말씀을 읽는다. (신약성경 통독)
- 2)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 3) 말씀을 읽은 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 나. 기도

- 1) 자유키도 : 50일간 개인별로 기도한다.
- 2) 느헤미야기도 : 느헤미야가 수 일동안 슬퍼하며 금식한 후 무너진 예루살렘성벽을 52일만에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서울교회 재건을 위한 기도를 매일 3분 이상, 50일간 진행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교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2017년 사명자대회가 10월 8일(주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서울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는 창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세계복음화, 교회전국화, 문화기독교화> 를 지향하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꽃대를 세워 달려왔다. 교회는 <천국시민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세우고, <이웃의 등대·민족의 구원선·세상의 나침반>이라는 사명을 받아, 열렬한 기도, 성경적 설교,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목회 전략을 삼고,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하나님의 목회를 실천해왔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 2017 사명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 <2017 사명자 대회 조직>

- 대회장 : 이종윤 원로목사
- 지도교역자 : 서준권 목사
- 본부장 : 이계홍 장로
- 차장 : 김웅기 집사
- 진행분과 : 장창수 / 이종범 하상영 임종현
- 전도분과 : 손태현 / 교구간사
- 기도분과 : 김승록 / 김혜연 이승준
- 교육분과 : 김영희1 / 이성우 장윤기 김혜연 정현구 정철웅 김시환
- 홍보분과 : 허 숙 / 유은경
- 재정분과 : 김형상
- 안내분과 : 예완식 / 예배위원
- 봉사분과 : 김찬진 / 권사회
- 차량분과 : 송인수 / 차량부 위원

## 세례 신청 안내

- 세례 교육 : 10.8(주일) 오후 1시
  - 세례 문답 : 10.8(주일) 오후 2시
  - 세례식 : 10.15(주일) 오후 찬양예배
- 세례, 유아세례, 개종,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 바랍니다.



## 2017 성경 암송대회 오늘 예선

본선 일정 변경 : 10월 14일(토) 오후 1시

2017년도 성경암송 대회 예선이 오늘 각 교육부 서별로 열린다.

본선 일정은 10월 14일(토) 오후 1시로 변경되었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10월 22일(주) 오전 11시~오후 4시

유·초등부에서는 10월달에 가을성경학교를 10월 22일(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그동안 짧아진 유·초등부 시간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 이에, 10월 22일 따로 시간을 잡아서 즐겁게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바란다.

## 중·고등부 말씀 프로젝트 "도전! 성경골든벨"

10월 22일(주) 중·고등부 예배후

중·고등부에서 10월 22일(주) 학생들의 신앙과 성경 지식 향상을 위해 말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도전! 성경 골든벨』을 개최한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 열리며 범위는 베드로전서, 마가복음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린다.

## 중·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2부예배 후, 504호)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손(수험생, 유학, 군복무)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과 총대 여러분!

서울강남노회 총대, 노회장 김예식 목사입니다.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총대권 여부와 관련해서 노회를 대표하여 서울교회와 관련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노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9월 11일 총회 재판국은 서울교회와 관련한 3건의 소송에 대해 이렇게 판결 하였습니다.

① 2011년 허락된 서울강남노회의 박노철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다

②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을 따르고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

③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에 지시한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지시는 무효다.

총회 재판국의 이 판결들은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① 박노철 목사는 총회가 마련한 절차를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본 노회의 허락으로 적법하게 위임목사가 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6년이나 지난 청빙과정이 무효라는 판결은 상식 이하의 결정입니다. 또한 청빙무효소송의 판결도 그 시한을 5개월이나 경과하였기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② 서울교회의 안식년제와 재신임은 정관이 아니라 규정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교회의 내규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준용한다.”라고 합니다. 총회헌법에는 안식년 규정은 없고, 목사의 휴무에 관한 적용은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 형편과 목회적인 판단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강제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임목사에게 안식년 시행과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입니다.

③ 본 노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한 것은, 반대측이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교회당을 폐쇄하고, 당회장의 당회 소집에 불응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던 중, 서울교회의 장로선거청원을 정기노회에서 전 노회원이 만장일치로 허락하고, 절차에 따라 상회인 본 노회는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재판국은 무효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문제는 판결내용만 아닙니다. 재판국이 4월에 기각하고 8월에 열린 재심재판국에서도 기각한 소송을 지난 9월 11일에 행정쟁송위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재판국의 이전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총회재판과 사회재판에서 모두 다 승소한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무효시킨 것은 상식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해석을 통보하여 서울교회 사태를 키우고, 스스로 상반된 해석을 통보하여 혼란을 가중시킨 헌법위원회의 잘못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강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불법적인 재판을 무효로 할 것과 재판국의 사과 및 재판국원들의 교체 나아가 재판국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강남노회 노회장 김예식 목사

# 서울강남노회 김예식 목사 억지주장에 대한 반박

## 강남노회는 오류에 빠지지말라

지난 9월 18일 제 102회기 총회 기간 중 서울강남노회 김예식 목사는 서울교회 상황을 호도하고, 9월 11일 있었던 총회 행정재판 판결에 대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총회재판에 불복하려면 재심 등 정당한 법적구제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강남노회 임원들은 총회에서 허위사실로 박노철 목사를 대변하면서 총회재판국원의 경질을 주도했고, 박노철 목사 측의 거짓되고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서울교회와 총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먼저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목사고시가 아니라 노회가 결의한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의 무효확인**이었고, **그 결의는 2011.11.8.에 있었으며 소제기는 2016.11.3.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 박노철 목사는 **청목이수증명서도 없고 합동측목사자격도 없어 통합교단 목사청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서울교회 청빙 시 총신대 신대원 신학 석사 M.Div.도 취득하지 못하고 단순히 연구과정만 마쳤으면서도 거짓으로 "총신대신대원 M.Div. 편입 졸업"이라고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학력을 속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장신대총장과 합동측 동서울노회장, 그리고 박목사의 졸업장과 서울교회에 낸 이력서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총신대 연구과정은 우리 교단이 청목 입학 자격으로 인정하는 M.Div.가 아니다.** 합동측에서는 그 대학 연구과정 수료자는 합동측 목사고시 자격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 교단 청목입학시 요구하는 신대원 M.Div.출신과 동등한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박노철 목사 청빙결정사유가 확실하다. **총신대학교 학칙 제2조에 의하면 연구과정은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M.Div. 학위도 받지 못했으면서 이력서에 M.Div. 편입이라고 허위기재 하였다.**

또한 김예식 목사가 언급한 **지난 4월의 기각건과 8월에 재심 기각건은 권징분과에서 다른 다른 사건으로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행정 쟁송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총회 재판국은 동일 사건의 판결을 뒤집는 적이 없다.**

재판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 재판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절차가 있으므로 박노철 목사가 지난 9월 11일 판결에 불복한다면 재심 청구를 하면 될 것을 **강남노회는 신성한 총회장을 허위 사실, 편파 왜곡된 주장으로 소동케하여 크나큰 불법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김예식목사는 총회판결의 한쪽 당사자 피고로서 오히려 이를 수용하여 총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함에도 교묘하게 왜곡한 거짓내용으로 재판국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안식년 규정에 관하여도 박노철 목사 측은 사회재판에서도 다 승소하였다고 하나 **지금까지 진행된 법원소송은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관련된 박노철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소송 한 건으로, 청빙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본안소송 1심도 현재 진행중이어서 한 번도 본안판결이 없었는데도 마치 모든 판결**

**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박노철 목사의 대변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후반부터 **박노철 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의 수가 절대 소수이므로 자기에게 불리하다 하여 **당회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들의 당회 방해 등으로 당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명년도 교회 행정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11월에는 당회원들이 여러 차례 당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소집하지 않아 서울교회는 2017년의 모든 행정이 마비될 위기에 있었다.** 이에 당회는 2017년을 박노철 목사를 안식년으로 규정 짓고, 불가불 교회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대리당회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배와 교회의 모든 행사를 당회가 주관한다.** 당회는 2017년을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으로 규정하고 1월 15일 설교자를 김철홍 목사로 세웠으나 **박노철 목사는 이에 불복, 밤새 목양실에 동조자들과 있다가 주일 새벽 열쇠공을 불러 본당 열쇠를 따고 들어가 강대상을 절거시기므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강남노회 김예식 목사는 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서울교회가 일방적으로 교회를 폐쇄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상 유일한 헌법해석기관으로 당사자는 물론 모든 기관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김예식 목사는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을 시행하고 재시 무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에게 유리한 해석은 접수하고 불리한 해석은 배척하는 억지주장을 하고, 총회장과 임원회에서 내린 헌법시행권고도 계속 무시하므로** 오늘의 서울교회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가 그간의 재정비리를 덮으려고 박노철 목사를 쫓아내려 한다는 거짓 논리로 자신을 항변한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 반대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재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다. 오히려 박노철 목사의 재신임과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재정비리라는 거짓 이슈로 상황을 호도한 것이다.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2년간 열심히 재정비리의 증거를 찾고, 고소고발을 하며 쫓아다녔지만 박노철 목사 측의 고소고발은 모두 무혐의처분 되었고, 오히려 박노철 목사 교회카드 횡령사기건은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 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김예식 목사나 임원들은 그간 한 번도 서울교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강남노회가 진정 서울교회의 사태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주일이든 서울교회 예배에 참여하여 저들이 주장하는 양쪽의 예배인원의 숫자가 맞는지, 과연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에 다시는 서울교회와 같은 아픔이 없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 번 강남노회 김예식목사와 임원들에게 바른 길을 촉구한다.

▲ 9월 18일 102회기 총회에서 9월 11일 총회 판결에 대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서울 강남노회와 노회장 김예식 목사

# 기독교인과 제사(祭祀)



김영한 목사  
(기독교학술원 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조상 제사의 기원은 조상 숭배다. 이는 조상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기복(祈福)사상과 연결된다. 유교에서는 제사의 식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고 뿌리 의식을 갖게 된다. 조상 제사의 근본은 두 가지다. 첫째, 효사상이다. 효는 모든 덕의 시작이며 근본이다. 조선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효를 강조하고 장려하고 보급했다. 둘째, 뿌리의식이다. 그리고 집안의 결속을 다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조상 제사는 효를 가르치고 뿌리의식을 심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유교의 효(孝)사상은 기독교 효 사상(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과 같으므로 유교인들은 쉽사리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조상에게 경의를 표할 때에 기독교적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조상신에게 경배하는 것이므로 우상숭배가 된다. 조상 제사는 기독교 추모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조상 제사는 조상 신위(神位)에게 절하는 예식이나, 기독교 추모식은 조상의 영정(影幀)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예식이다. 조상 존경과 감사가 이방신에게 절하는 제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기독교에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이지 더 좋은 방식이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이 추모(追慕)식이다. 보통 추도식이라고 해왔는데 도(悼)자가 슬퍼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돌아가신 이를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리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으로 추모식이라 하는 것이 좋다. 성도 가운데는 친척 어른들이 믿지 않거나 혹은 불신 가문에 시집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우상숭배라고 참석하지 않으면 불효라고 오해받고 전도 기회를 놓치고 시집살이가 어렵게 된다. 그런 경우는 제수(祭需)비용부담도 잘하고 참석은 잘하되, 절하는 대신 기도하는 방식을 허락받는 것이 좋다. 필자의 제자 중 한 분이 불신가정에 머느리가 되어 성실히 제사에 협력하되 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허락받고 수년 지나면서 차츰 시집 어른들을 전도하여 모두 예수를 믿도록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본인이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가 발라 어른들을 공경하여 칭찬을 받으면 가능한 일이다.

## 교육부서 대청소

# 잘 관리하고, 꼭 필요하게

지난 23일(토), 서울교회 교육위원회의 대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적게는 2월부터 열어보지도 않던 자료, 용품, 비품들, 그리고 좁 넓게는 17년만의 교육부서의 대청소였습니다.

21개 부서를 손대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 생각하고 시작하였지만, 그래도 청소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8월 24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계홍 장로) 정기모임시 교육부서 대청소가 논의되었고, 추가 안건으로 공동 물품 관리를 위한 'Room 마련'이 발의되어 많은 의견과 절충 가운데 "교육위원회실" 운영까지 결의를 마치고, 당회의 승인을 득하고, 청소 일정은 한 달 뒤인 9월 23일로 정하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교육부서 100여명의 교사들과 청년들의 수고로운 손길로 1주일 간 정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보관하여 사용하던 많은 자료와 교보재 등 비품, 용품들이 현재 901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주를 더 정리하고 배치하여야겠지만 그래도 정말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책임지시는 2018년도를 기대"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빈 곳, 그 빈 공간은 이제 제 욕심, 제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교육위원회 일동-



▲ 지난 9월 26일(화) 제 28회 당진시립합창단(당진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백경화 권사) 기획연주회 『브로드웨이 뮤지컬&오페레타』 공연을 마치고

## 동 정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찬조 : 권성자 권사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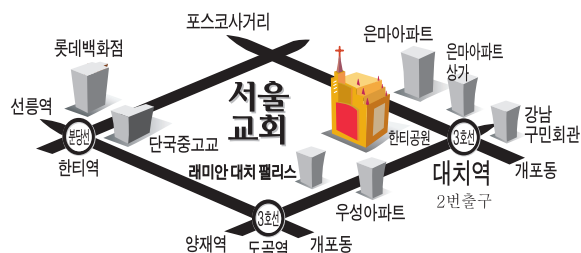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2. 2017 사명자대회(10월 8일 - 11월 26일)가 은혜롭게 준비 되도록
3. 2017 성경암송대회(10월 14일)를 통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서울교회 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